

지인할인 받은 금액,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삼육대, 김기곤 목사 가족 5000만원 기부

삼육대학교는 제12대 총장을 역임한 김기곤 목사 가족이 외국인 유학생 인재 양성을 위해 50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15년간 매년 4명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오른쪽부터) 김기곤 삼육대 전 총장, 김정호 사모, 제해중 총장이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육대



광동제약,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광동제약은 지난 9일 광동과천타워에서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공정거래 법규에 기반한 사업 계획을 적극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 (왼쪽)와 이정명 한국준법진흥원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동제약



세종대-타슈켄트대, 2+2 복수학위 협정 체결

세종대학교는 지난 3일 교내 집현관 10층 소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대(Tashkent International University)와 2+2 복수학위 협정(MOA)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종화 세종대 총장(왼쪽 두번째), 전용욱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대 총장(왼쪽 세번째) 등 양측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



한신대, '한신복돋움 프로그램' 우수 활동 시상

한신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지난달 26일 '2024학년도 2학기 한신복돋움 프로그램'의 우수 활동 조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 활동 조에는 ▲1등 최우수상 '1조 활자요리사' ▲2등 우수상 '6조 밀리와 아이들' ▲3등 장려상 '8조 팔팔한 8조'가 차지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됐다. /한신대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최준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강운경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윤영귀 △국방대학교 교육 파견 김홍섭

부음

▲강성진(전 증권업협회장)씨 별세, 강완구(일동월드와이드 회장)·홍구(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신애(따뜻한재단 이사장)씨 부친상, 박용만(같이걷는길 이사장,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씨 장인상= 1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층 23호, 발인 14일. 02-3010-2000



김지혜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실손의료보험 계약 중 일부 특약으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 비용 전액 및 일부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 및 일부로서 비급여 부분. 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약(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비급여 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이다. 국민건

강보험법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과 달리 그 부담 여부 및 액수가 어느 정도는 의료기관과 환자 등 사이의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인 비급여 진료비용을 미리 정해 일정한 방법으로 환자 등에게 고지해야 한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 그런데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미리 고지한 진료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과 환자 등 사이의 개별 진료계약의 내용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개별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이때 피보험자가 '지인할인 등 명목'으로 미리 정해 고지한 진료비용 중 일부를 할인받고, 일반 환자에게 고지된 비급여 진료비용 전부를 보험금으로 청구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지인할인 명목의 할인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따른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봐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의미는 그 뜻이 명확하지 아니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인할인에 의해 감면된 후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라 지인할인에 의해 감면되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거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확실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면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약관의 문언에 비취 보더라도 피보

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의료기관이 특정 환자에 대해 지인할인 등 명목으로 미리 정해 고지한 진료비용을 할인해 준 경우, 그 할인된 금액이 해당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 약관 조항 부분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인데,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 진료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다. /법무법인 바른

삼바 “송도국제도시에 협력사 유치… 교류 확대”

2025 상생협력 데이

경영진·실무자 등 50여명 참여 상생협력 통해 핵심 경쟁력 강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9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호텔에서 '2025 상생협력 데이'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행사에서 전년도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 사업 전략을 공유하는 등 주요 협력사 경영진 및 실무자 총 50여명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핵심 목표를 달성하며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협력사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머크의 'M랩' 및 싸이티바의 '패스트 트랙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머크의 '생명과



지난 9일 인천 경원재 호텔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2025 상생협력 데이' 행사에서 박용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외협력팀장(왼쪽부터), 황원현 아반트코리아 센터장, 석수진 써모피셔코리아 대표,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협력센터장, 송인섭 삼성바이오로직스 구매팀장, 김용석 머크코리아 대표, 최준호 싸이티바코리아 대표, 김덕상 싸도리우스코리아 대표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학 운영본부' 설립, 2021년 써모 피셔의 '바이오프로세스 디자인 센터' 개설 등이 성사됐다. 또 지난 2024년에는 싸이티바가 인천 송도에 제조 시설을 갖춘 '코리아 이노베이션 허브'를 마련했고, 싸도리우스코리아도 대규모 생산·연구시설 '송도 캠퍼스'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처럼 글로벌 기업이 잇따라 송도에 입성하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내의 바이오

생태계가 지속 확대되고, 고용 창출 등 경제 활성화, 원부자재 국산화 등 동반 성장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김동중 상생협력센터장(부사장)은 "협력사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서로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파리바게뜨 LA 산불 진화 현장지원

SPC그룹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을 위해 제품을 기부한다.

파리바게뜨 아메리카본부는 미국 LA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 진화 작업에 힘쓰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DTLA점, 산가브리엘(San Gabriel)점 등 LA와 인근 지역 30여개 점포를 통해 11~12일 이틀간 샌드위치와 페이스트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아메리카본부 관계자는 "지역 사회 기여(Nourish Community) 브랜드 방침을 실천하고자 가맹점들과 함께 소방관들에게 제품을 지원하게 됐다. LA 지역 사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산불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매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매장에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심정민추모사업회, '별이 된 보라매' 출판

심 소령 순직 3주기 추모식

공군조종사 고(故) 심정민 소령을 기리는 추모식과 출판 기념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고인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경기도 수원 공군 전투비행장에서 훈련비행을 하다가 기체 고장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으나 민가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끝까지 탈출하지 않고 비행기를 몰다가 순직했다.

12일 심정민추모사업회에 따라



면 심 소령의 순직 3주기 추모식이 전날 그의 모교인 대구능인고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추모식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의장과 이인선 의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이 참석해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내용의 추모 메시지를 낭독했다.

이날 추모식과 함께 심 소령의 이야기를 담은 추모책 '별이 된 보라매

(사진)' 출판 기념회도 열렸다.

출판기념회 사회를 맡은 심 소령의 사관학교 동기 김상래 대위는 "고인의 결혼식 사회를 제가 맡기로 했었지만 다른 일정으로 약속을 못 지켰다"며 "이 사회를 맡게 돼 당시 약속을 못 지킨데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토로했다.

책 '별이 된 보라매'에는 고인이 가장 아꼈던 조카와 나는 전화 대화 내용을 QR코드로 입력해 직접 들을 수 있게 했다. 고인의 어릴 적 사관학교 재학 시절, 그리고 수원 전투비행단 시절 사진 등도 수록돼 있다.

/원승일 기자 won@

경동나비엔 '한번 더 콘텐츠' 전시회

경동나비엔이 국민대학교 금속공예학과와 함께 '한번 더 콘텐츠: 가치의 재발견' 전시회를 개최한다.

12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선 수명이 다한 콘텐츠 일러의 부품과 재재를 학생들의 신선한 시각으로 재탄생시킨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 은'에서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bada@